

교회 목 록

신령한 예배
천국일로 앞장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간 총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총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이형수

2003년도 제차 세례식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2003년도 제1차 학습 및 세례식이 베풀어진다.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 회원은 모두 78명으로, 학습 14명(남 9명, 여 5명), 세례 38명(남 14명, 여 24명), 유아 세례 11명(남 7명, 여 4명), 입교 14명(남 7명, 여 7명), 그리고 개종 1명(남 1명)이다. 이번 세례식을 통해서 이들이 단순한 물 세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여받는 성령의 세례식이 되도록 다함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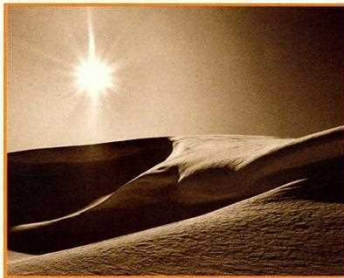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다(마 3:1~2). 그의 회개의 세례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선포되었던 예언의 성취였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마 3:3). 그의 외침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온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영적 인 각성을 하게 만들었다(마 3:5~6). 그의 경교는 일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마 3:7).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의 경교는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서는 외침이었다(마 3:8~12). 그리고 그는 자신이 베푸는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나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고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다(마 3:13). 예수의 이러한 제인은 요한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로 빠뜨리는 요청이었다(마 3:14). 예수께서 가까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격려하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마 3:15~16).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손 아래 순종하는 지극한 겸손이 요단강에서 벌어졌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마 10:38)라고 도전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던 단순한 의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행 1:5).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 그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행 2:38), 모든 족속에게 베풀어지게 될 하늘의 예식이다(마 28:19, 행 18, 19:45, 22:16). 또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이다(골 2:12). 어디 그뿐이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우게 하여 참된 연합에 이르게 하는 한 족속으로의 복귀를 상징하는 일이다(고전 12:13). 진실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리니(갈 3:27).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 믿음에 하나님이시니 세례 하사나이다(골 4:5). 우리가 받는 그 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바림이 마땅히 오직 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영적인 계명이다(딤후 2:25).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소리질려
당신께 나가지 수있음에
내 어두운 날에도
참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대는
어떤 탄식도
외면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빛!
눈 먼 자를 돌아보시듯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오신 당신,
외로움의 손가(2000)
고독한 날의 몸짓이
세상의 바닷물을 지나
당신의 영혼에 닿았게 하사나니
그리스도여!
그대 향한 사랑의 굴뚝,
내 인생의 손에(2000) 길에서
걸다코
멈추지 않게 하여주소!

소망이 있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 하기를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짐장난하' 하되
자라 더욱 성히 소리질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재배케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마 18:38~39, 42)
그리스도여!
보이지 않아요 그를 믿을 수 있음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아름다우며 또 세상의 조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를 의지할 수 있음은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 순종은 진실로 견고하여 저런 세상을 낙하히 이기는 능력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제언(2)

예배의 어원적 의미

신령한 예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배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원적인 의미'로 예배를 살펴보는 것인데, 구약적 어원과 신약적 어원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예배를 가르키는 용어는 구약성경에 '샤아'아, '아바드' 등이 있다. '샤아'아는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엎드리다'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 말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종의 행위나,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는 모세의 행위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다. '샤아'아의 행위는 숭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몸과 마음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는 '아바드'다. '아바드'는 '일하다', '성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히브리어 '샤아'아 70인역(LXX)에서는 '프로스쿠네'로 번역되었는데, 예배와 연관하여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인 '프로스쿠네'는 '누군가의 손에 입을 맞추다' 또는 '자세를 낮추어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에 대해서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마 24:6)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마 4:24). 또한 '프로스쿠네'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바드'라는 용어는 70인역에서 '타이틀'이아로 번역되었는데, 그 뜻은 '백성의 일' 또는 '사역' '경배' '섬김'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백성'의 의미를 지닌 '레우스'(leues)와 '일'의 뜻을 지닌 '에르곤'(ergon)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레 1:23, 22:17, 3:16). 그리고 이 용어는 믿음으로 인하여 행동으로 발현되는 실천을 나타내는 말로서, 예배는 신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의 실천으로서의 타이틀이아의 개념은 중세기를 거치면서 서양의 표현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단지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예배를 의미하는 신약의 용어들 중에는 '타트루오'(tateuo)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존경과 경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골 2:1, 빌 3:3, 히 12:28, 1:75). 이 단어는 예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세보마이'(sebomai)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신약에서 헌신적인 의미로 번역되어 있다(행 13:43, 50, 17:14, 17). 그리고 '유세베오'(eusebeo)는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예배'(worship)라는 영어 단어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물에 가치를 매기겠다는 뜻을 가진 worth-ship(가치를 매김)이라는 낱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진실성과 깊이의 깊고 낮은 여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고상하며 깊이가 있는지에 의해 증명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는 영어의 'worship'은 앵글로색슨어(舊印) 'weorðscipe' 즉, 'worth(가치)와 ship(신분)'에서 유래하기도 했는데,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shi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단어가 의미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으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to ascribe Him supreme worth)'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배는 그 여원에 서부터 언제나 하나님 중심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신령한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 어떤 지위로 보강하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의 제물과 생육으로 하나님께 드림이니라'(엡 5:2).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봉사 위에만 그대를 관제로 드림이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나'(빌 2:17).

THE LORD'S SUPPER

(1 Corinthians 11:23-26)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In this description of the Lord's Supper, Paul mentions to the Corinthians that he received this knowledge "from the Lord." Actually, when Jesus ministered on earth, Paul was against Christianity and didn't even know Jesus. So, when he says,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he's talking about his personal relations with Jesus after His resurrection. He didn't hear the message of the Lord's Supper from other disciples and Christians, he obtained it directly from Jesus Christ. Jesus gave him one of God's most important secrets.

Paul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Our Lord communicated with him in extraordinary ways. In Acts 18:9, we read, "And the Lord said to Paul in the night by a vision. Do not be afraid any longer, but go on speaking and do not be silent." In Acts 22:18, we read, "and I saw Him saying to me, 'Make haste, and get out of Jerusalem quickly, because they will not accept your testimony about Me.'" Jesus and Paul had personal talks through uncommon means. Have you ever had such conversations with our Lord? Most Christians haven't, but Paul certainly did in many instances. Look at Acts 23:11, "But on the night immediately following, the Lord stood at his side and said,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solemnly witnessed to My cause at Jerusalem, so you must witness at Rome also.'" Look also at Galatians 1:12, "For I neither received it from man, nor was I taught it, but I received it through a revelation of Jesus Christ." Paul was a man who directly and personally

communicated with Jesus Christ!

In today's Bible passage, Paul reiterates the message he received from Jesus concerning the Lord's Supper,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Before Judas kissed Him and identified Him that night to the Roman authorities, He took the bread. In other words, He took the bread and cup before the cross. He explained to Paul that the bread is an expression of His body, "this is My body." He also explained that the cup is an expression of the new covenant in His bloo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He didn't say this cup is My blood. Jesus specifically state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Jesus not only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bread and cup, but He also told Paul that the Lord's Supper is for us, not Him. His death "is for you." Jesus died so that believers could be found righteous and receive spiritual salvation, "and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for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1 Pet. 2:24). Jesus was cursed for our benefit, not His,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Gal. 3:13). The Lord's Supper changes us. It is an expression of Jesus' sacrificial love.

Further, Jesus told Paul that the Lord's Supper is to be taken in remembrance of Him. He sai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When we partake of the Lord's Supp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or us to remember His death. In other words, this is not the time to ponder about our fellowship, blessings, or church activities. We need to think of the personal significance Jesus' death has in our hearts. He is our Mediator, and he simply asks us to remember that He died to save us. Therefore, we need to concentrate upon the meaning of His death.

That God made His new covenant through the body and blood of Jesus Christ is the foundation of the new covenant. That's why Jesus Himself was able to celebrate. He wants it to be a continual blessing celebration. He purposefully repeated the phrase, "in remembrance of Me," because it is the one and only objective to the new covenant. As such, our eyes, thoughts, and life need to focus on Jesus Christ.

During your time of prayer and reflection before the Lord's Supper, please focus on what Jesus' death means to you. For when you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Lord's Supper, then you are able to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Jesus' death resurrection, and second coming are our blessed hope. For from His death comes salvation. Indeed, His death involves our past, present, and future eternal blessings.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through Him" (Rom 5:9) Amen. Do you believe it? We are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Christ Jesus" (Tit. 2:13). Let's now join in His Supper. 🍷

주의 만찬

(고전 11:23~26)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김성완 목사

주께 받은 것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한 묘사에서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주께로부터 만찬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바울은 기독교를 배웠었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말할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주의 만찬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 가운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의 교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아주 색다르고 특이한 방법으로 바울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도행전 18:9를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잡잡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18을 보면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이진 않은 수단을 통해서 예수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과 그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대화하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방법으로 대화했습니다. 사도행전 23:11을 보십시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1:12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받은 만찬의 교훈

오늘의 성경말씀에서, 바울은 그가 예수께로부터 받았던 주의 만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

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유다가 예수를 로마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께 입맞추었던 그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떼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떡을 떼시며 잔을 나누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그 떡은 자신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예수께서는 또한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그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표현이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이 잔을 자신의 피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

예수께서는 단지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주의 만찬은 ‘예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찬에 참여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되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재물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벧전 2:24). 예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3). 주의 만찬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실로 성찬은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주의 만찬은 그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성도의 교제나 축복 또는 교회 활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려고 명료하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의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기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만드신 언약은 새로운 언약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찬이 영원히 축복된 기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를 기념하라”라는 구절을 반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언약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 생각 그리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함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 기도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진실로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은 우리의 축복된 소망입니다. 진실로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참으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롬 5:9). 아멘.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딤후 2:13)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만찬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어린시절 제 아버지가 어부였다는 생각이 얼마 전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의 일 부분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낚시 줄에 낚시 밤을 걸고 추를 던진다고 고기들이 금방 물러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려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낮이든 밤 중이든 고기가 낚시 줄을 물기를 간절할 마음으로, 눈을 떼지 않고 낚시 대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오랜 인내 후에 낚시 줄에 고기가 걸려들기라도 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크든 작든 간에 오랜, 기다림을 한 순간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뽕박박이든 험한 산중턱이든, 양이 있는 곳에 갑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지혜로라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위해 계획한 것을 기도로 구하여 준비하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세속화된 그들의 영혼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저 바쁘게 일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또한 기도 부탁합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이 그럽습니다. 아니 어느 땅, 어느 곳에서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슬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듯 인내와 사랑의 기다림을, 오래 참음의 비결을 배워야함을 느낍니다.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랜 투쟁의 후에 진정한 눈물의 열매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인내의 열매를 사모하며 복음의 선을 신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처럼 외선 부에 출세하고 있는 형제들의 가족을 방문해 말씀을 전하며 귀국자들과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거에 작은 가정교회에서 말씀사역과 그리고 최은아 선교사가 담당했던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귀국자들을 양육하고 그 열매로 몇 가정이 꾸준히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형제들을 양육하고, 인근교회에 연결하는 사역이 계속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와거 가정교회가 말씀으로 더가 굳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제목입니다.

다. 또한 어린이 성경공부와 영어 찬양 배우기,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십자수 놀기, 또한 부녀자들에게는 뜨개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어린이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데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웠던 또 너무 쉬웠던 어린이들은 신실하게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많은 기도동역자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의 몇 가지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1. 귀국자들과 와거 가정교회가 말씀으로 자라도록
2. 가정심방을 통해 말씀의 열매가 있도록
3. 함께 사역한 신실한 형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도록
4. 어린이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아디카리 가정과 스리야미 가정의 일을 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스리랑카에서 강기업 올림

주는 믿음을 가르치는 몽골사역

윤 정훈 (전도사, 외선부 부지도)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①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중환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7월에 지역 식구들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갈 예정인데, 구체적 일정과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녔던 교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어떤 지역으로 가야할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방글라데시에 다녔을 계획입니다. 작년엔 교구 식구들과 방글라데시 보그라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받아들이면 그들의 눈망울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돌아온 후에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 함께 갔던 교구식구들도 다시 방글라데시에 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2. 단기 선교의 한변도 보내지 못한 지역 식구들에게 단기선교를 갈 것을 권면하실 때 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주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권면합니다. 저 또한 단기선교를 가보기 전에는 단기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로 선교를 간다는 것이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었지요. 그러나 작년에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 그 생각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단기선교를 가기 전 나의 신앙은 잠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솔직히 단기선교를 가야한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욱 기도하여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 려놓게 되더군요. 단기선교를 가서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매일 경험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기선교를 가기 전에는 한변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는데, 갔다 온 후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장을 갈 때면 각 나라에서 뭇 사역자를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방콕에 내 려다가 시간이 남아 시내에 나가 식사를 했지요. 식사를 하면서 식당 주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식당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얼마 죽이 결신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던 그 영혼들이 떠올라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신앙을 깨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김희선
3교구 3지역장

*'알렉산드리아와 카자흐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대륙부 선교팀들이 지난주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선교단을 통해 선교된 복음의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내려 자라도록 기도에 더욱 힘쓰자.

신입부 이야기



♡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제한 적은 많았지만 성경을 직접 가르쳐 보는 것은 처음이다. 그나마 나와 함께하는 조원들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부를 거쳐서 청년부로 올라온 사람들이라 다행이다. 조원들도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 함께 공부하며, 성장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나눌 것이다.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전할 때가 가장 힘들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하면 배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힘들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정말 난감하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교제도 물론 중요하다. 특히, 교회의 지체로서 일을 하려면

교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신입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제도 게을리 하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만날 것이다.

(이시형-신입부 조장)

♡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는 계속 다녔으나 믿음이 없었다. 그러다가 대학부에서 친구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다.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사람이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감동 받는다.

구원에 대해서만 알뿐 아직 많이 부족하다. 특히, 봉사하다가 상처 받은 경험이었어, 성경에서 봉사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

(김한나-청년1부 신입부원)

♡ 어린 시절에 잠깐 교회에 다니다가 할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못 다녔었는데, 고 3 때 친구 따라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가족들 중에는 아직 믿는 사람이 없다. 요즘은 연 친구 관계나 여러 일들로 말씀에 많이 강박해져 있다. 그래서 말씀에 강박하지 말라는 지난 주 목사님 설교가 많이 남는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와 닿지 않았다. 신입부 모임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을 피부로 느꼈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싶다. 할머니의 반대가 아주 완강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죄인 된 백성들을 인도하셨듯, 예수님께서 상황도 자격도 안 되는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

(김진정-청년1부 신입부원)

경오의 기도

인간의 악함을 생각합니다. 주님, 세상은 온통 악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밝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어 죄생의 재물로 드러려 세상에 빛이 되었을때 온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빛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을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소서, 하나님! 저의 죄생을 죽이고 살리소서, 날마다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손에는 그들을 향해 칼을 들고 있는 저의 도소를 용서하소서, 주님,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합니다. 죽는 자 아니면 죽이는 자입니다. 나로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주안에 있지만, 생명을 살려내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많이 살해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와 이 세대는 둘을 거가 있으나 둘지 못하고 볼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기를 지고 "나를 풍치하소서" 라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 연약한 자의 무릎을 날마다 주 앞에 꿇게 하소서, 부르짖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주의 권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나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소서, 나는 주 앞에서 설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시어야 주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께서 허락하시어야 저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맘속에 항상 계시어야 무엇이든 알 수 있고 주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로 주 앞에 전적으로 서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여건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앞에 전적으로 서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의 계획하심임을 깨달게 하소서, 주를 늘 생각하게 하소서, 주가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지난 찬양예배 때 주신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들은 우리나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 두면 살려나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왕하 7:4), 죽기를 각오하고 주 안에서 주만 의지하고 믿고 전적으로 나의 생명 되신 주께 나의 생명을 맡기게 하옵소서, 나는 무지와 지혜가 없으며, 날마다 죽음으로 가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또 한 주년을 살아갑니다. 주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을 열어 주께 생명을 위해 간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을 열어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리옵소서,

장학생 인터뷰 ①

1. 천국일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천국일꾼 양성'이라는 우리 교회 목표를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은 장학금을 받는 소수의 학생들만 해당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을 천국일꾼으로 잘 양성하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협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천국일꾼이란 더욱 넓은 의미로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믿는 신자라면 모두가 천국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한 천국일꾼이 더 많아지도록 성도간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혔는데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네다." 신자 되기 이전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나의 죄를 위해 큰 벌을 제 세상에 준비하고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형벌이 무서워서 그 대상을 믿어안다는 작은 소망이 제 마음을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형벌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잘 것 없는 저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찬양의 가사처럼 나와 동행을 하시며 친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멋진 친구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통해 요구되는 모범적인 삶의 모형은 예수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 자신이 하나님이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셨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셨듯이 우리의 모습 또한,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예수님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말씀, 기도, 성도간의 교제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게 주어진 자비자공하이라는 학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합니다. 전도인의 직무에 대하여 하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제자로서의 삶이 스스에게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며 학업 및 관련 일들에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그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빈진(청년1부)

(권오섭 기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 교회 솔로리스트들은 찬양대 합창 뿐 아니라 예배 전 찬양, 헌금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솔로리스트들을 찾아가 찬양으로만 들든 그들의 간증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

1. 특별히 즐거워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요즈음엔 135장 갈보리산 위에,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즐겨 찬양합니다. 삶에 고난이 닥칠 때와 힘겨울 때 "힘한 십자가 붙들겠네"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을 돌이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이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 할 때마다 102장으로 주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며 절대 가치의심을 선포합니다.

2. 찬양과 관련된 간증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10년 동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예전에 습관처럼 회회를 오가던 저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저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살면서 저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멀리하려 할 때에는 그 때의 간증을 생각하며,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니다.

3. 찬양 연습과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양은 곧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연습을 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노래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보다는 찬양의 내용을 통해 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데 보냅니다. 또한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묶는 권세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찬양대원으로서, 독창자로서 저의 일을 준비합니다.

4. 찬양에 대해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오직, 성령에 이끌리어 신령과 진정, 감사함으로 영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며, 제 찬양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로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김사중 집사
아연 찬양대 솔로리스트

(임혜원 기자)

다들 주일 찬송

282장 "유월절 때가 이르매"

초기 한국 교회의 장로교 찬송가(찬성시)(1905년)에 처음 수록되었던 이 찬송가는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 구레선(Dr. R. Grierson)이 한국어 창작 찬송가로 성찬예식을 위해서 작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709년 아이작 왈츠바스에 의해 성만찬 찬송가로 작시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작곡자는 헨리 캔들 올리버 박사로 1832년에 작곡하였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주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회상해 보는 찬송가로 우리는 그 때 주님이 하신 마지막 언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래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28).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부를 때 1·4절은 남자 성도가, 2·5절은 여자 성도가, 그리고 3·6절은 함께 불러왔는데 이는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적절한 찬양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권영원원회)

주간성경공부 시간표	*교육기간 / 3월 11일(화)~5월 22일(목)	*신청장소 / 교육관 2층 교육극
시 간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30-12:00	시편 / 김동후 목사	목요일
오후 2:00-3:30	창세기 / 인창덕 목사 사무엘상 / 이수근 목사 이사야 / 방준영 목사 마태복음 / 서광진 목사 로마서 / 김용덕 목사	사무엘상 / 이수근 목사 마태복음 / 서광진 목사
오후 7:30-9:00		

교사양성부	찬양대 양성부
강의일정 3월 9일(주일)~5월 25일(주) 매주일 오후 3:00~4:50 강의장소 제1교육관 208호	3월 9일(주일)~5월 25일(주) 매주일 오후 3:00~4:50 본당4층, 찬양위원회실
	*신청장소: 교육관 2층 교육극

★ 양호실

3교구 박춘자 집사(여46세) 유방암 수술을 했으며, 5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이성진 성도(남9세) 근육위축성-신체의 아래부분부터 서서히 굳어가는 병으로 부평 소재 사회복지재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도록, 또 가정에서 돕는 손길이 더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정병남 집사(남63세) 지난 7일 수술을 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편묵상

시편 130편 - 소망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타가 될 날은 같으니라"(욥 5:7)라는 욥의 탄식처럼, 사람은 길의 고뇌로 위대한 삶을 삽니다. 상처 입은 어떠한 생물체도 이토록 고뇌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130편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러한 고통에 빠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야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시 130:1-2).

그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나라(깊은 데)로 떨어져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드러내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통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성리하는 분의심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시편 130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명백히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시고 긍휼성인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다"(시 130:7-8). 어떠한 죄악과 고통의 심연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시 139).

때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뢰하여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며 이겨내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나 곧 내 영혼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데도 파손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손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시 130:5-6).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즉 소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계획대로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운명에 맡기는 체면 상태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을 세외, 어느 때에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고통이 아닌 구원(시 130:7-8)임을 믿음에 근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라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남다른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파손꾼이 아침이 올 것을 한 치의 의심없이 믿고 날이 밝는 순간까지 그의 경계 의무를 다하듯이 믿습니다.

(임혜원 기자)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춘순' 성도를 소개합니다



토목 계열의 건설회사를 경영하면서 모든 고민을 오로지 술과 담배,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에 의탁해 생활하던 중, 출현교회 장로님의 권유로 교회에 왔습니다. 삼십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잠시 친구 따라 나카본 후 28년만에 다시 찾아 온 교회였는데, 예배와 집회시간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설교 말씀과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마음

에 닿았습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지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술과 담배에 찌든 방탕한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인도해주시는 장로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신생남매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씌어지는 구슬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아는 이들은 '얼마나 가보자', '무슨 공짜로 교회에 가나?' 하고 비아냥거리지만 저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숙정 통신원)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9	김승재	1	청년부	176	박정자	7	장년부	183	이주연	19	대학부
170	원혜미	1	청년부	177	이현주	7	고등부	184	홍유일	19	대학부
171	김학순	1	소망부	178	이영경	8	청년부	185	왕호성	19	고등부
172	황보출	2	장년부	179	황승경	10	청년부	186	지봉득	19	고등부
173	이정성	2	장년부	180	배예리	13	청년부	187	유인희	19	대학부
174	노미진	2	청년부	181	김동욱	15	청년부				
175	김미숙	4	청년부	182	이연경	17	청년부				

★ 출현교회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표도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부에서 받은 충격

강 진 회 (사랑부 교사)

작년 여름이었다. 다른 날과 같이 충현복지관에 자원봉사를 갔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몇몇의 복지관 친구들의 기분이 들떠 있었다. "선생님 오늘 교회에서 수련회가요. 부원집? 선생님도 같이 가요." 한 친구가 나에게 와서 자랑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몇 주 전부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들떠 있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겼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냥 무심하게 넘겨두던 말이 그날 따라 내 머리 속을 맴도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친구들은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친구들을 들뜨게 했던 수련회는 사랑부에서 개최하는 여름 성경학교였다.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열에 이른 친구에게도 교회에 같이 가자며 전도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나를 보면 교회 자랑을 하는 친구들도 생겼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성경학교에서 수련회 간다고 했을 때 저런 모습이었던가? 나는 어떻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가?

복지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사랑부에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나의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사랑부에 왔지만, 지금은 사랑부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정말로 사랑부의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자음이 낮아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도 거의 없다. 하지만 사랑부 친구들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만 부족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랑부에 와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장애와 비(非)장애를 떠나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을 하자" 하나님께로 나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요일 4:7-8).

내게 생명이 된 설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배다부 청년 박세정입니다. 충현교회에 다닌 저는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아였을 때의 전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순수하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고 생각이 자라서 주일마다 고백교회 교회에 출석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등 의문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성경책을 읽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잘 읽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또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너무나 깊은 어둠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았고 제 안에는 불평과 불만, 연약함,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특수학교에서 오랜만에 유치원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가 저를 충현교회 예배다부로 인도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저에게는 자막방송과 수화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설교말씀이 이해되었고 저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 도모게 제 마음 한 구석이 평안하며 위로와 기쁨이 샘솟처럼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내가 너를 공세하라 할지어도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저의 어둠과 힘든 삶에 희망과 빛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화도 열심히 배우고, 믿음이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언약례를 가져옴

하나님의 언약례는 바알레유대에 70년 이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례를 옮겨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알레유대(기랴아람)로 갑니다(삼하 6:1-2a),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삼하 6:3a). 단이여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한 것은 나름대로 신교의 언약례에 준중히 여기는 행위였으나, 법제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만이 법제를 어깨에 매고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민 15:1, 79). 다윗의 하나님을 높이오자 하는 열정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던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훈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을 때 우사가 언약례에 손을 대었습니다.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삼하6:6b). 소들이 날뛰므로 언약례를 잡으려 한 우사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신성모독(神聖冒瀆)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법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으므로 가벌에 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해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15).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신령을 쓰지 않는다. 억지로 불순종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오스발드 캠퍼스).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삼하 6:7,9a).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언약례를 가져옴. 성경을 철저히 사고하여 율법대로 법제를 운반하였습니다(대상 15 장).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돌을 성결케 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어깨에 매고 운반하도록 합니다(대상 15:4-15).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대"(삼하 6 : 14a).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례를 수도 예루살렘에 모시기 된 것에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이를 기뻐한 것입니다. 다윗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은(삼하 6:14, 16절) 순수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자기를 택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일을 기억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높이오자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의 깨끗하지 못한, 게으름, 솔직하지 못한 것들로 인함이 아닌가 회개합니다.

(권형일 기자)

전도의 열매

고린도전서 11 (1 Corinth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고린도전서를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주제들을 생각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고린도전서에서 방한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1장~4장). 사실 분열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의 차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道)에 대한 지식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道)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지적한 두 번째는 '부도덕한 행상'에 관한 지적입니다(5장~7 장).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성적인 타락은 결혼과 가정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타락한 성적인 문화들은 고린도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장성한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이하여 하시는지 이해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8장~11장). 어떤 관습의 문제 뿐 아니라 먹는 문제, 특히 제물로 사용되었던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문제와 만찬을 위하여 준비한 음식을 함부로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자유에 대한 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주제를 읽으면서서 참된 공동체의 십악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교회에서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교훈한 것입니다(12장~14장). 사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누구보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던 바울의 교훈을 위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위여부?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15장). 이 문제 역시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논의되는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되기를 직접 만났던 바울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여러 분도 부활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고린도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바울은 지극히 엄격하고 분절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단순히 어떠한 제도나 경험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보다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도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언제나 지극히 순수해야 할 사도들에 대한 영적인 지각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전 1:8).

김동환 목사(순환관 지도)

알림

1. 주간성경공부 시간표는 6면을 참조하세요.

모임

1. 권사 4차 월례회
일시: 26(일) 주야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출현 전도대 연합회
일시: 27(일) 09:30 본당 앞 출발
장소: 출현기도당
3. 남·녀전도부 연합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15
장소: 전도위원회실

별세

1. 김선성 성도
임곡성 집사의 남편, 3교구 도곡
전도부 2월 13일 별세, 2월
15일 장례
2. 윤광일 전 사무장
이명성 집사의 남편, 12교구 성안
구역 / 2월 18일 별세, 2월 18일 장
례
3. 최병삼 타고안수 집사

회영규 성도의 부친, 강영희 집사
의 시부, 17교구 상원구역 / 2월
16일 별세, 2월 18일 장례

졸문

1. 윤호 군(윤유봉 씨, 김용자 씨의
아들)과 차하나(원 장자도 씨 성도,
장순숙 집사의 딸, 5교구) / 3월 1
일(토) 15:00, 작별잔치별 반하
판 13층 약속의 집(3호선 남부터
미널역 3번출구)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인제(남/녀)
2. **직책** 세무관리
3.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주요경력서
당첨장 추천서(2인당 3명)
4. **서류제출처**
성도 김갑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접수기간: 2월 22일 ~ 3월 1일

성서연구소

회계 실무 교육실시

대 상: 1·2·3교구위원회 총무처장 회계
남녀 전도회 회계·부회계, 각기관 회계
일 시: 오늘 15:30 장 소: 교육관 307호

신론가정부 겨울수련회

주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3:18)
일시: 2월 28(금)~3월 1(토) 장소: 제교목당 201호
대상: 신론 가정 및 예비부부 신청: 신론가정부(교육관 206호)

충현복지단 목록방 안내

대 상: 비인가 시설 및 정신지체인 단체/장애인 복지단 이용인
시 간: 매주 목, 금 10:00 ~ 17:00(조깅장)
이 물로: 무료 준비물: 배낭, 수건, 휴지 제공
문 의: 564-4884나선 105 통화문 한달 전에 예약반납한다

감사위원회 전반기 회계감사 실시

1. 기간: 2003년 3월 ~ 4월 2. 대상: 각 부서 회계전도제 재외
3. 장소: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 준비사항: 시산표 (2002년 12월, 2003년 1월), 금전증납부 원장,
영수증철, 봉장 등

3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 담당

수요일 예배 담당			주일 예배(경로)			찬양 예배(만수집사)		
226	사 회	설 교	월	일	I	II	I	II
수요일	이성기	김계희	3	2	권명옥	김구형	박종태	박경자
수요일	하종철	유영선		9	조종환	최대원	황영일	이태식
3/5	사 회	기 도		16	이종식	김영길	최부길	노영환
수요일	정현민	박경자		23	원종철	안종욱	김종용	최혜진
수요일	여국근	이혜식		30	박찬섭	박종규	김영달	김종현

이반주 새벽기도회 담당			26(수)	27(목)	28(금)	3/1(토)	3/2(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정수/김구형	장 훈/남용송	임원덕/김용필	최종철/이보신	이희식/이상복	하종철/최문실	이수근/전은희

다음주(3/2~3/8) 예배 담당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I	고통의 땅에 맺으리라고 하느님께서 증언(지도:김승희)	김창훈	권명옥	주의 만찬(고전 11:23-26) 경전도 목사
II	나의 믿을 약탈 때 비바리온 시몬(사바리온 찬양대 지휘)	안창익	김구형	주의 만찬(고전 11:23-26) 김성관 목사
III	저 장미꽃 위의 이슬(김승자, 광명교회(이현찬) 찬양대 지휘)	이종대	김종구	주의 만찬(고전 11:23-26) 김성관 목사
IV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외제나 김현우(벤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서광진	이병학	주의 만찬(고전 11:23-26) 이윤진 목사
V	찬 양	류병희	정창길	주의 만찬(고전 11:23-26) 김성관 목사
금요기도회	특별찬양(마리온 이정현/소망부 주창단/임아누엘 찬양대)	나경영	박종태	감동찬(사 42:1) 김동하 목사
		김용덕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찬양예배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들이 노래하는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기도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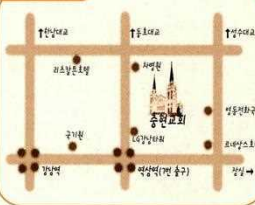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장 년 2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I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오후 12:40	교육관 407호
유 차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오후 12:15	강 렬 리 롭
	III 오전 10:50	교육관 307호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사 랑 부	오전 11:00	북치관 지혜1층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오후 9:00(한국어) 오후 10:00(영어)	에베다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타 자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 102호
중 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오전 9:30	강 렬 리 롭, 베타니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환아어린이집	주안교육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조 기교육부	주안교육	교육관 107호
중 동 2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주안교육	중환아어린이집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국대세교구교부	오전 9:30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중환아어린이집	오전 6:10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어 및 수화로,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Indonesian, and Bengali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충현기도의향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시므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러 주
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
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성도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
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믿음에 매이고, 성령의 동지를 받으
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다져져 가게 하소서.
- ⑥ 교구별 대안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
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
게 하소서.
- ⑦ 단가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
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성·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기철 김은호 노영환 오진국 이병학
김태원 임영성 강종오 오정현 이 훈
남선우 정운성 김경길 문종구 조인제
김종구 최부길 김진석 이창호 차신호
김광남 이종식 이병욱 안종욱 임부원
이종식 최기홍 이광재 김종용 권종용
이경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원종욱 이병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혜진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종규 권명옥 조종환
박준식 김경달 이선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환 박정규 정창길 최교수 강철형
고재송 김영은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경훈 여국근
김광성 이수근 이윤진 안창익 방종영
나광영 정진호 김승덕 이성욱 고광환
김광관 위관장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원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전도목사 이정철
여전도사
정현덕 신동자 윤운수 한영준 권연식
홍순애 이숙주 김달자 안혜선 김경선
조옥자 강덕림 김경진 장영구 최문실
전은희 김경순 김경숙 이수경
찬양감독 강임구 전담지휘자 서준성
전담지휘자 김소연
단가신교 강기섭 신광희
협력선교사 하요성